



2017년 하반기 펀드평가보고서

김 경 미 (펀드평가팀 연구원)

[1] 펀드시황 개요

2017년 하반기(2017.07월 ~ 2017.11월) 글로벌 증시는 상반기에 이은 글로벌 교역량 확대와 인프라 투자확대 기대로 상승세를 지속했다. 선진국 경기흐름은 유로존 제조업황의 호조와 미국 고용시장 회복으로 소비심리가 점차 회복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신흥국은 원자재 풍부국을 중심으로 수출증가가 지속되고 약달러 기조 가운데 안정적인 물가를 유지하며 내수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하반기 국내증시는 상반기에 이어 반도체·석유화학 업종의 우수한 수출과 완만한 내수 확대로 6월 말 대비 3.53%(+84.58pt) 상승한 2,476.37pt로 마감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중국 간 사드 배치 갈등 완화와 바이오시밀러 산업

도래로 의료업(24.65%)은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반도체 가격 상승과 글로벌 인프라 투자확대 기대로 소재(17.19%)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에너지(14.91%)가 뒤를 이어 크게 상승했다. 거래소 기준 하반기 투자자별 매매동향은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조 1,538억원과 1조 5,669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한 반면 기관은 1조 57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규모별로는 MKF 소형주 지수(6.41%)가 대형주 지수(5.44%)와 중형주 지수(3.57%)보다 우수한 상승률을 보였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중소형주의 약진이 두드러지며 하반기 동안 15.30%(+102.38pt) 상승한 771.42pt로 마감했다.

〈표 1〉 유형별 펀드 수익률 및 설정액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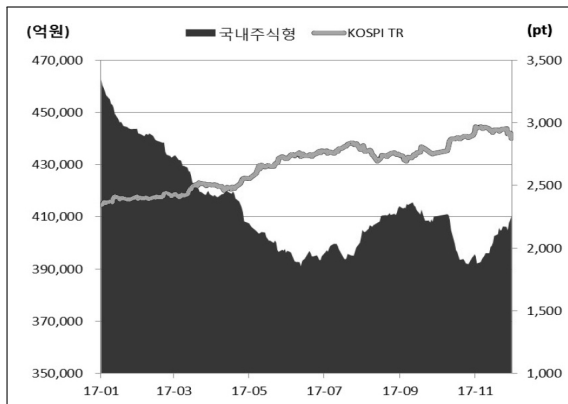
(단위 : 개, 억원, %)

유형	펀드수	설정액	설정액증감				수익률			
			2017 하반기	2017 상반기	1년	3년	2017 하반기	2017 상반기	1년	3년
국내주식형	815	410,220	13,797	-66,136	-74,934	-161,218	4.37	17.62	27.57	24.38
국내혼합형	627	164,878	-6,042	-11,418	-23,863	31,222	1.05	4.72	7.09	9.18
국내채권형	247	181,365	-5,646	202	-15,367	71,661	0.20	0.74	1.25	5.19
해외주식형	697	205,611	17,698	367	16,907	33,780	10.69	12.74	23.71	24.46
해외혼합형	293	42,928	7,916	3,389	10,969	6,965	4.90	7.42	13.22	13.91
해외채권형	140	78,399	8,378	10,031	17,024	26,476	0.69	2.75	4.25	7.97

주1) 2017년 상반기 기준: 2017.07.03 ~ 2017.12.01 / 2016년 하반기 기준: 2017.01.02 ~ 2017.07.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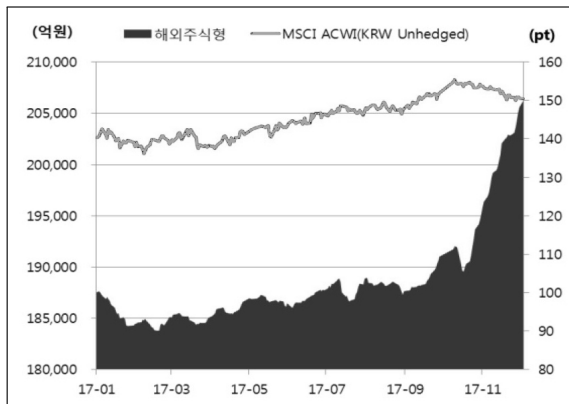
주2) 펀드수 및 설정액은 일반펀드(모펀드 제외) 및 종류형펀드를 집계함. 단, 수익률은 운용/모펀드를 제외한 설정액 10억원 이상의 펀드 대상임
출처 : FnSpectrum, 에프앤가이드 유형분류 기준(공모펀드 대상) / 기준일: 2017.12.01

〈그림 1〉 국내주식형 설정액 추이



출처: FnSpectrum / 운용펀드 기준

〈그림 2〉 해외주식형 설정액 추이



출처: FnSpectrum / 운용펀드 및 일반펀드 기준, MSCI ACWI(KRW Unhedged)

2017년 하반기 국내주식형펀드는 4.37% 수익률을 기록하고 인덱스펀드 위주로 자금이 유입돼 전체 수탁고(ETF 포함)는 1조 3,797억원 증가를 시현했다. 해외주식형펀드 수익률은 글로벌 증시 상승에 따라 10.69% 상승했으며 수탁고는 1조 7,698억원 순유입

을 기록했다. 국내채권형 수익률은 국내의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에 동조하면서 0.20% 상승에 그쳤으며 수탁고는 5,646억원이 유출됐다. 해외채권형 수익률은 0.69%를 기록하고 수탁고는 8,378억원 증가를 시현했다.

2 국내주식형

2.1 유형별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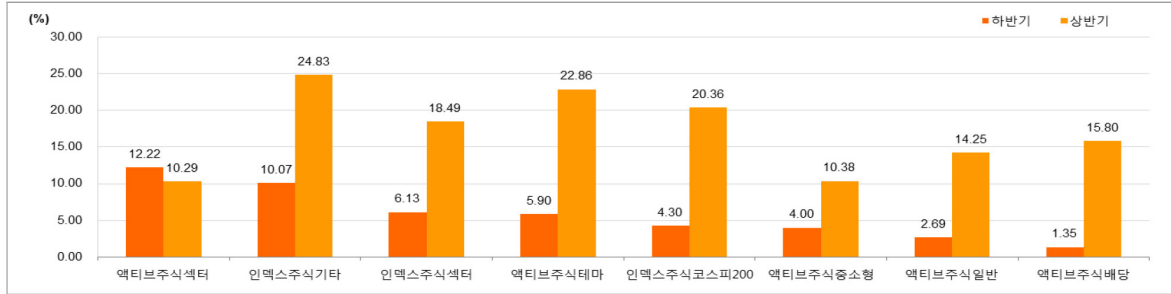
국내주식형펀드(4.37%)의 하반기 성과는 배당포함 시장수익률 3.76%를 0.61%p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과 11월 코스피 조정기간을 제외하면 인덱스펀드는 대형 IT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6.01% 상승했다. 적극적 운용을 통해 시장수익률의 초과 달성을 추구하는 액티브펀드는 유형간 다소 큰 편차를 보이며 3.03%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소유형별로 살펴보면 모든 유형이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가운데, 액티브주식섹터가 의료 및 IT 업종의 호황으로 12.22% 상승하며 가장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했고

코스피 상승시 수익을 극대화하는 레버리지펀드가 다수 편입된 인덱스주식기타는 10.07%로 뒤를 이었다. 반면 액티브주식배당은 1.35%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과를 기록했다.

2017년 하반기 국내주식형펀드는 1조 3,797억원의 수탁고 증가를 기록했다. 액티브주식전체의 설정액이 1조 3,414억원 감소했으나 인덱스주식전체 설정액은 2조 7,211억원 증가하였다. 인덱스펀드 가운데 인덱스주식기타에서 1조 5,450억원의 증가하며 인덱스주식전체 수탁고 증가에 기여했으며 액티브주식에서는 액티브주식일반에서 1조 3,231억원이 감소했고 액티브주식테마 역시 6,364억원이 감소하면서 액티브주식전체 수탁고 감소의 원인이 됐다.



〈그림 3〉 국내 소유형별 기간수익률 비교



출처 : FnSpectrum, 수익률 상위 순 정렬

〈표 2〉 소유형별 펀드 수익률 및 설정액증감

(단위: 개, 억원, %)

소유형	펀드수	설정액	설정액 증감				수익률			
			2017 하반기	2017 상반기	1년	3년	2017 하반기	2017 상반기	1년	3년
국내주식형 전체	815	410,220	13,797	-66,136	-74,934	-161,218	4.37	17.62	27.57	24.38
액티브주식전체	534	252,452	-13,414	-47,476	-68,260	-137,624	3.03	15.05	22.69	16.75
액티브주식일반	373	142,677	-13,231	-30,292	-48,612	-113,380	2.69	14.25	21.26	16.11
액티브주식중소형	46	30,995	-51	-875	-1,050	14,539	4.00	10.38	19.43	11.87
액티브주식배당	57	50,671	5,794	-7,968	-2,862	-1,649	1.35	15.80	21.81	26.53
액티브주식섹터	8	3,409	438	-113	407	2,062	12.22	10.29	27.70	16.81
액티브주식테마	50	24,700	-6,364	-8,228	-16,144	-39,195	5.90	22.86	34.48	20.12
인덱스주식전체	281	157,769	27,211	-18,660	-6,673	-23,595	6.01	21.55	34.66	35.68
인덱스주식코스피200	88	80,941	6,024	-9,875	-8,083	-25,341	4.30	20.36	30.53	34.62
인덱스주식섹터	61	17,653	5,737	1,509	7,345	13,044	6.13	18.49	30.76	21.23
인덱스주식기타	132	59,174	15,450	-10,294	-5,935	-11,298	10.07	24.83	45.41	41.08

주1) 펀드수 및 설정액은 일반펀드(모펀드 제외) 및 종류형펀드를 집계함. 단, 수익률은 운용/모펀드를 제외한 설정액 10억원 이상의 펀드 대상임
 주2) 2017년 하반기 기준: 2017.07.03 ~ 2017.12.01 / 2017년 상반기 기준: 2017.01.02 ~ 2017.07.03.
 출처 : FnSpectrum, 에프앤가이드 유형분류 기준(공모펀드 대상) / 기준일: 2017.12.01

2.2 운용사별 성과

액티브주식형 펀드를 대상으로 평가대상 39개 운용사별 성과를 살펴보면, 하반기 수익률 상위 10개의 운용사는 모두 배당포함 코스피 수익률(3.76%)을 상회하는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그 가운데 DB자산운용은 액티브주식섹터 유형의 'DB바이오헬스케어중

권투자신탁 1[주식]'이 중국간 갈등 완화와 의료 업종의 개선으로 우수한 운용사 수익률(13.66%)을 시현했다. 이어 '현대인베스트먼트로프라이즈증권자1(주식)'을 앞세운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11.87%)과 '맥쿼리미래만들기증권자2(주식)'을 위시한 맥쿼리투자신탁운용(11.68%)이 그 뒤를 이었다. 액티브주식전체의 설정액은 하반기 동안 총 1조 3,414억원 감소하며 유출세를 보였으나 베어링자산운용은 '베어

링고배당증권(주식)'에 1,433억원의 자금이 유입돼 운용사 전체로는 5,680억원의 수탁고 증가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NH-아문디자산운용은 배당주 펀드에 많은 자금이 유입돼 해당 운용사 수탁고는 809억원이 증가했고, 맥쿼리투자신탁운용은 퇴직연금 펀드의 높은 수요로 681억원의 설정액 증가를 시현했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른 기업들의 배당금 확대가 기대되면서 배당주 펀드에 많은 자금이 모였고, 금융기관들의 퇴직연금 활성화 정책으로 퇴직연금펀드 수탁고

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덱스주식형 운용사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평가대상 19개 운용사 가운데 상위 10개사는 25% 이상의 수익률을 거두며 하반기 배당포함 코스피 수익률(3.76%)을 크게 상회했다. NH-아문디자산운용은 41.58%의 수익률로 시장수익률 대비 약 37%p 상회했으며, 삼성자산운용은 31.64%의 수익률로 뒤를 이었다. KB, 하나UBS자산운용은 파생결합형 레버리지펀드의 우수한 수익률에 힘입어 높은 운용사 성과를

〈표 3〉 국내액티브주식형 운용사별 수익률

(단위: 개, 억원, %)

운용사	펀드수	설정액	수익률			
			2017 하반기	2017 상반기	1년	3년
DB	8	2,148	13.66	6.99	25.63	19.38
현대인베스트	5	1,386	11.87	4.48	26.60	11.00
맥쿼리투신	12	1,917	11.68	19.33	44.96	52.13
대신	12	421	10.87	18.36	39.61	18.19
칸서스	4	672	8.76	17.43	34.09	29.92
마이다스	12	2,598	7.71	18.41	33.67	24.38
플러스	2	353	7.42	16.04	28.46	16.26
메리츠	5	12,834	6.23	9.27	19.70	9.14
동양	8	2,698	6.08	13.47	25.29	14.59
알리안츠	4	1,731	5.87	11.75	24.10	20.22

〈표 4〉 국내액티브주식형 운용사별 설정액증감

(단위 : 개, 억원)

운용사	펀드수	설정액	설정액증감			
			2017 하반기	2017 상반기	1년	3년
베어링	8	9,251	5,680	238	5,585	3,633
NH-아문디	17	5,070	809	-751	918	967
맥쿼리투신	12	1,917	681	-248	705	862
하이	15	2,034	610	-223	554	-934
삼성	24	4,522	437	-572	334	-1,560
한화	15	3,466	390	-354	374	-487
유리	9	718	371	-75	368	248
IBK	14	1,610	133	-247	107	-426
플러스	2	353	41	-3	40	-64
대신	12	421	33	-95	29	-453

주1) 같은 기간 배당포함 코스피 지수 수익률: 2017년 하반기 3.76%, 2017년 상반기 18.24%, 1년 27.34%, 3년 31.45%

주2) 펀드수 및 설정액은 일반펀드(모펀드 제외) 및 종류형 펀드를 집계함

주3) 2017년 하반기 기준: 2017.07.03 ~ 2017.12.01 / 2017년 상반기 기준: 2017.01.02 ~ 2017.07.03.

출처 : FnSpectrum / 월말 기준 설정액 200억원 이상, 최근1개월 평균 설정액 100억원 이상인 운용사 대상 / 기준일: 2017.12.01



〈표 5〉 국내인덱스주식형 운용사별 수익률

(단위: 개, 억원, %)

운용사	펀드수	설정액	수익률			
			2017 상반기	2016 하반기	1년	3년
NH-아문디	6	6,295	41.58	12.03	50.18	50.83
삼성	58	57,856	31.64	9.06	37.87	38.17
KB	22	13,390	30.91	8.42	36.71	38.74
하나UBS	8	759	29.82	9.92	35.99	37.49
이스트스프링	2	649	26.72	7.36	31.67	38.81
한국	16	6,814	26.48	8.02	31.90	34.22
유진	1	931	26.31	7.87	31.18	35.35
미래에셋	59	31,244	26.24	0.08	31.78	27.77
멀티에셋	3	2,343	25.60	8.21	30.72	33.46
키움투자	25	3,966	25.58	7.39	30.64	33.63

〈표 6〉 국내인덱스주식형 운용사별 설정액증감

(단위 : 개, 억원)

운용사	펀드수	설정액	설정액증감			
			2017 상반기	2016 하반기	1년	3년
삼성	58	57,856	8,402	-3,890	3,329	-1,573
한화	25	14,068	3,872	-80	3,583	4,223
KB	22	13,390	1,380	-1,039	-1,264	3,386
NH-아문디	6	6,295	645	-5,199	-3,991	-5,647
멀티에셋	3	2,343	191	145	190	2,141
미래에셋	59	31,244	135	3,154	547	6,890
한국	2	419	10	23	10	360
동양	2	501	-34	270	178	211
유진	1	931	-71	-14	-73	617
이스트스프링	2	649	-117	-94	-116	-491

주1) 같은 기간 배당포함 코스피 지수 수익률: 2017년 하반기 3.76%, 2017년 상반기 18.24%, 1년 27.34%, 3년 31.45%

주2) 펀드수 및 설정액은 일반펀드(모펀드 제외) 및 종류형 펀드를 집계함

주3) 2017년 하반기 기준: 2017.07.03 ~ 2017.12.01 / 2017년 상반기 기준: 2017.01.02 ~ 2017.07.03.

출처 : FnSpectrum / 월말 기준 설정액 200억원 이상, 최근1개월 평균 설정액 100억원 이상인 운용사 대상 / 기준일: 2017.12.01

시현했다. 인덱스펀드 전체(ETF 포함)에 2조 7,211억 원의 수탁고가 증가한 가운데 삼성자산운용의 설정액은 8,402억원 증가를 기록했다. 한화자산운용은 3,872억원이 유입되며 그 뒤를 이었고 대형 레버리지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 중심으로 높은 수탁고 증가를 시현했다.

2.3 펀드별 성과

국내주식형 하반기 펀드 수익률 상위 10개 펀드 수익률은 모두 유형평균(4.37%) 대비 30%p이상 상회

했다. 인덱스주식기타 유형인 한화자산운용의 '한화 2.2배레버리지인덱스(주식-파생재간접형)A' 펀드가 58.84%의 성과를 거두며 국내주식형 펀드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상위 10개 펀드 가운데 6개 펀드가 코스피지수를 추종하면서 레버리지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인덱스주식기타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액티브주식형 가운데서는 바이오·헬스케어 섹터의 약진이 두드러져 '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증권자1(주식)A-e'와 'DB바이오헬스케어증권1(주식)C-F'가 각각 49.09%, 42.63%를 기록하며 상위에 랭크됐다. 그 외 액티브주식 가운데 삼성그룹주 펀드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하반기 국내주식형에 속한 개별펀드 자금유입 상위 5개 펀드(ETF 제외)에서는 총 9,111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된 펀드는 하반기 동안 3,228억원이 증가한 'NH-Amundi코리아2배 레버리지증권주식-파생형'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베어링고배당증권투자회사(주식)'에서 2,215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투자신탁1(주식)(모)'와 '신영밸류고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운용'에서는 각각 5,723억원과 5,593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국내주식형 수익률 TOP10 펀드

(단위 : 억원, %)

펀드명	운용사	유형	설정액	순자산	수익률			
					2017 하반기	2017 상반기	1년	3년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종류A	한화	인덱스주식기타	163	170	58.84	15.51	71.26	63.06
NH-Amundi코리아2배레버리지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ClassC	NH-아문디	인덱스주식기타	468	616	52.41	13.68	62.91	55.74
한국투자두배로증권투자신탁 1(주식-재간접파생형)(A)	한국	인덱스주식기타	239	333	52.04	14.07	62.52	55.16
KB스타코리아레버리지2.0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A 클래스	KB	인덱스주식기타	368	486	50.79	12.79	60.94	50.39
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 1(주식)종류A-e	미래에셋	액티브주식테마	143	152	49.09	-22.80	56.38	56.54
DB바이오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 1[주식]ClassC-F	DB	액티브주식섹터	109	119	42.63	-17.81		
하나UBS파워1.5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ClassA	하나UBS	인덱스주식기타	223	291	38.32	10.98	46.20	45.10
NH-Amundi1.5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ClassC	NH-아문디	인덱스주식기타	296	321	37.94	10.91	45.75	44.11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증권투자신탁 1(주식)(C-F)	한국	액티브주식테마	769	927	36.33	3.16	40.66	18.97
동양모아드림삼성그룹적립식증권투자신탁 1(주식)A	동양	액티브주식테마	260	262	35.85	2.45	40.01	15.54

주1) 운용/모펀드 제외/ETF 제외 * 같은 펀드 중 수익률 우수한 클래스 대상

주2) 2017년 하반기 기준: 2017.07.03 ~ 2017.12.01 / 2017년 상반기 기준: 2017.01.02 ~ 2017.07.03

출처 : FnSpectrum. 설정액 100억원이상인 펀드를 대상으로 함. 국내주식형펀드(공모) 대상 / 기준일: 2017.12.01

〈표 8〉 국내주식형 자금유출입 상위/하위 펀드

(단위 : 억원)

구분	펀드명	운용사	유형	설정액	순자산	자금유출입			
						2017 하반기	2017 상반기	1년	3년
상위	NH-Amundi코리아2배레버리지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NH-아문디	인덱스주식기타	4,095	5,446	3,228	-2,653	-1,831	1,294
	베어링고배당증권투자회사(주식)	베어링	액티브주식배당	3,456	3,994	2,215	-381	537	-1,305
	하나UBSIT코리아증권투자신탁 1(주식)	하나UBS	액티브주식섹터	1,258	1,654	1,266	-30	883	1,058
	NH-AmundiAllser성장중소형증권투자신탁[주식]	NH-아문디	액티브주식중소형	1,916	2,198	1,223	217	1,286	1,843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연금지축증권전환형자1(주식혼합)	미래에셋	액티브주식배당	2,309	2,358	1,180	313	1,142	1,681
하위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투자신탁 1(주식)(모)	한국	액티브주식일반	4,378	5,156	-5,723	-1,897	-15,042	-10,446
	신영밸류고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운용	신영	액티브주식배당	23,945	28,685	-5,593	-868	-15,809	-12,268
	KB밸류포커스증권투자신탁(주식)(운용)	KB	액티브주식일반	8,883	8,983	-5,475	-1,977	-13,640	-10,018
	한국밸류10년투자증권투자신탁 1(주식)(모)	한국밸류	액티브주식일반	7,365	7,168	-4,577	-2,469	-13,075	-9,037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증권투자신탁 2(주식)(모)	한국	액티브주식테마	5,876	6,344	-4,186	-1,769	-9,831	-8,700

주1) 운용 및 일반펀드 대상 (ETF 제외)

주2) 2017년 하반기 기준: 2017.07.03 ~ 2017.12.01 / 2017년 상반기 기준: 2017.01.02 ~ 2017.07.03

출처 : FnSpectrum. 설정액 100억원이상인 펀드를 대상으로 함. 국내채권형펀드(공모) 대상 / 기준일: 2017.12.01



[3] 국내채권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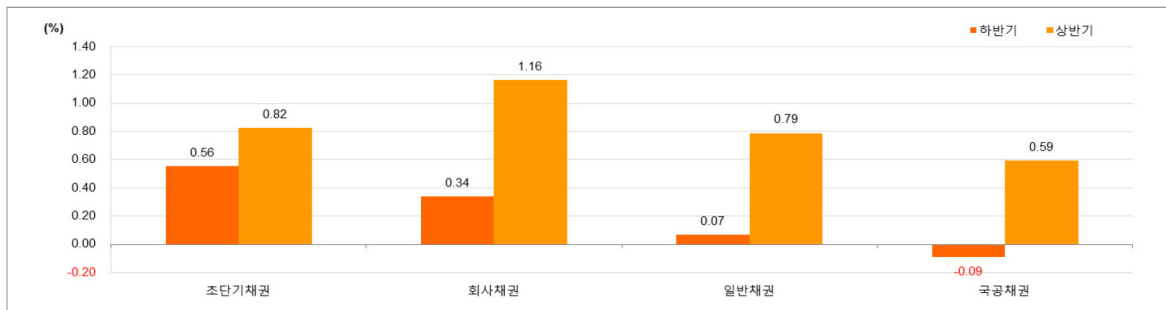
3.1 유형별 성과

2017년 하반기 글로벌 채권시장은 미국의 안정적인 물가상승과 고용시장 개선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 우려와 ECB의 자산매입규모 축소 발표에 따라 금리 상승세가 이어졌다. 국내채권시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 둔화와 내수회복 및 주변국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에 따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단행을 선반영하며 모든 만기구간에서 금리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 국고채 3년물은 6월 말 대비 38bp 상승한 2.08%를 기록했고 국고채 10년물은 26bp 상승한 2.48%로

마감했다. 11월 30일 기준 장기물 대비 중단기물의 금리 상승 폭이 커짐에 따라 국고3/10년물 스프레드는 16년 말(52bp) 대비 40bp로 축소됐다. 한편 미국 채 10년물은 11bp 상승한 2.42%로 마감했으며 영국 채 10년물은 7bp 상승한 1.33%를 기록했고 독일국채 10년물은 9bp 하락한 0.37%로 마감했다.

국내채권형 전체 성과는 0.20%를 기록하며 KIS채권종합 수익률(-0.19%)을 0.39%p 웃돌았고 해당 소유형은 국공채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소유형에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국내채권형 소유형별 기간수익률 비교



출처 : FnSpectrum

〈표 9〉 소유형별 펀드 수익률 및 설정액증감

(단위 : 개, 억원, %)

소유형	펀드수	설정액	설정액증감				수익률			
			2017 하반기	2017 상반기	1년	3년	2017 하반기	2017 상반기	1년	3년
국내채권형전체	247	181,365	-5,646	202	-15,367	71,661	0.20	0.74	1.25	5.19
국공채권	63	40,893	-10,304	-14,321	-27,254	8,134	-0.09	0.59	0.81	4.61
회사채권	5	3,325	700	25	618	2,191	0.34	1.16	1.95	6.06
초단기채권	20	58,511	4,675	18,566	19,232	37,361	0.56	0.82	1.56	4.74
일반채권	159	78,637	-717	-4,067	-7,962	23,978	0.07	0.79	1.23	5.57

주1) 펀드수 및 설정액은 일반펀드(모펀드 제외) 및 중류형펀드를 집계함. 단, 수익률은 운용/모펀드를 제외한 설정액 10억원 이상의 펀드 대상임.

주2) 2017년 하반기 기준: 2017.07.03 ~ 2017.12.01 / 2017년 상반기 기준: 2017.01.02 ~ 2017.07.03

출처 : FnSpectrum. 에프앤가이드 유형분류 기준, 국내채권형펀드(공모) 대상 / 기준일: 2017.12.01

세부적으로는 초단기채권이 0.56%의 수익률로 가장 성과가 좋았던 반면 국공채권은 -0.09%의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공채권형 펀드는 하반기 중반이후 북한발 리스크 확대에 채권시장에 외국인 선·현물 매도물량이 증가하고 대외 금리인상 기조에 동조하며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채권형펀드는 10월 금통위 소수의견 등장과 부동산 경기 우려 발언으로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며 2017년 하반기 동안 5,646억원의 설정액 유출을 기록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국공채권에서 1조 304억원의 설정액이 감소해 국내채권형 수탁고 감소의 주된 원인이 됐으며 초단기채권은 하반기 초중반 유입된 자금이 후반에 발생한 유출분을 상쇄하여 총 4,675억원이 증가했다. 그 외 일반채권은 717억원의 수탁고 감소가 발생했으며, 회사채권은 700억원 증가를 기록했다.

3.2 운용사별 성과

국내채권형 펀드를 대상으로 운용사별 성과를 살펴

보면 평가대상 28개 운용사 가운데 2017년 하반기 수익률 상위 10개 운용사 모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KIS채권종합 수익률(-0.19%)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 상위 10개 운용사 중 1조원 이상의 규모를 운용하는 곳은 유진, 동양, 한화자산운용으로 각각 0.72%과 0.67%, 0.3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채권형 펀드 전체의 설정액은 2017년 하반기 동안 5,646억원 감소를 기록했다. 하반기 중반 이전, 초단기채권펀드 중심으로 국내채권형은 자금유입을 지속했으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확대되자 중반 이후로는 자금이 유출되는 반전을 보였다. 그런 가운데 유진자산운용은 단기채 펀드로 자금이 크게 유입되어 5,678억원의 운용사 수탁고 증가를 시현했으며, 하이자산운용과 동양자산운용 역시 단기채 펀드의 수요로 각각 4,438억원과 4,007억원의 설정액 증가를 기록했다.

〈표 10〉 국내채권형 운용사별 수익률

(단위 : 개, 억원, %)

운용사	펀드 수	설정액	수익률			
			2017 하반기	2017 상반기	1년	3년
골든브릿지	3	2,662	1.08	1.43	2.78	0.00
유진	3	18,247	0.72	1.19	2.12	
동양	11	13,870	0.67	1.26	2.32	
KTB	3	3,225	0.57	1.04	1.82	0.00
하이	9	6,689	0.36	0.79	1.58	6.13
흥국	2	2,157	0.35	1.09	1.97	5.87
한화	17	10,454	0.30	0.79	1.32	4.93
하나UBS	13	6,063	0.20	0.30	0.86	4.95
키움투자	16	5,193	0.15	0.68	1.12	4.51
이스트스프링	5	4,911	0.14	0.84	1.36	5.47



〈표 11〉 국내채권형 운용사별 설정액증감

(단위 : 개, 억원)

운용사	펀드수	설정액	설정액증감			
			2017 하반기	2017 상반기	1년	3년
유진	3	18,247	5,678	10,605	16,375	
하이	9	6,689	4,438	310	4,628	5,591
동양	11	13,870	4,007	2,903	6,662	12,146
DB	3	3,034	1,101	147	1,664	3,032
KTB	3	3,225	939	1,124	2,068	3,225
대신	5	888	249	-22	193	835
이스트스프링	5	4,911	34	-53	10	59
메리츠	9	589	1	312	313	
신영	3	211	-27	-13	-40	103
베어링	2	416	-29	-69	-122	-113

주1) 같은 기간 KIS 채권종합 수익률: 2017년 하반기 -0.19%, 2017년 상반기 0.73%, 1년 0.92%, 3년 6.80%

주2) 펀드수 및 설정액은 일반펀드(모펀드 제외) 및 종류형 펀드를 집계함

주3) 2017년 하반기 기준: 2017.07.03 ~ 2017.12.01 / 2017년 상반기 기준: 2017.01.02 ~ 2017.07.03

출처 : FnSpectrum / 월말 기준 설정액 200억원 이상, 최근1개월 평균 설정액 100억원 이상인 운용사 대상 / 기준일: 2017.12.01

3.3 펀드별 성과

국내채권형 펀드의 2017년 하반기 수익률은 -0.09%를 기록한 가운데, 수익률 최상위 펀드는 동양자산운용의 일반채권인 '동양하이플러스채권증권자1(채권)' 펀드로 나타났다. 해당 펀드는 KIS채권종합 수익률인 -0.19%를 2.37%p 상회한 2.26%를 기록하며 가장 우수한 성과를 시현했다. 뒤를 이어 '동양단기채권증권(채권)'A'와 '유진채피언단기채증권자(채권)'A'는 각각 2.07%, 1.94%의 성과를 거두며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

했다.

국내채권형 펀드 전체 설정액이 5,646억원 감소한 가운데, 자금유입 상위 5개의 펀드에는 2017년 하반기 동안 1조 2,274억원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펀드로는 유진자산운용의 초단기채권형 펀드인 '유진채피언단기채증권자(채권)'에 5,473억원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가장 큰 폭의 유입세를 보였다. 반면, '한화단기국공채증권(채권)' 펀드에서 4,744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국내채권형 펀드 중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이어 'GB단기채증권투자신탁 1[채권]'에서 3,168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가며 뒤를 이었다.

〈표 12〉 국내채권형 수익률 TOP10 펀드

(단위: 억원, %)

펀드명	운용사	유형	설정액	순자산	수익률			
					2017 상반기	2016 하반기	1년	3년
동양하이플러스채권증권투자신탁 1(채권)ClassC-W	동양	일반채권	223	229	2.26	0.61	2.70	
동양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ClassA	동양	초단기채권	1,321	1,373	2.07	1.05	2.32	
유진챔피언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 Class A	유진	초단기채권	4,024	4,109	1.94	0.76	2.15	
KTB전단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종류CI2	KTB	초단기채권	429	436	1.70	0.74	1.91	
홍국멀티플레이증권투자신탁 4(채권)C-w	홍국	일반채권	119	119	1.68	0.49	2.25	6.76
한국투자e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C)	한국	초단기채권	1,088	1,117	1.64	0.50	1.84	
홍국퇴직연금멀티증권투자신탁 4(채권)C	홍국	일반채권	1,074	1,074	1.50	0.39	2.05	6.11
삼성코리아초단기우량채권증권투자신탁 1(채권)_Ci	삼성	초단기채권	708	714	1.37	0.65	1.59	
한화코리아밸류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종류C-RP(퇴직연금)	한화	회사채권	197	202	1.34	0.07	1.76	5.87
하나UBS파워e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ClassC	하나UBS	초단기채권	1,828	1,847	1.34	0.79	1.50	5.29

주1) 운용/모펀드/ETF 제외 * 같은 펀드 중 수익률 우수한 클래스 대상

주2) 2017년 하반기 기준: 2017.07.03 ~ 2017.12.01 / 2017년 상반기 기준: 2017.01.02 ~ 2017.07.03

출처 : FnSpectrum. 설정액 100억원이상인 펀드를 대상으로 함. 국내채권형펀드(공모) 대상 / 기준일: 2017.12.01

〈표 13〉 국내채권형 자금유출입 상위/하위 펀드

(단위: 억원)

구분	펀드명	운용사	유형	설정액	순자산	자금유출입			
						2017 하반기	2017 상반기	1년	3년
상위	유진챔피언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	유진	초단기채권	17,720	18,151	5,473	10,483	16,008	
	동양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	동양	초단기채권	8,094	8,316	4,278	2,522	7,009	
	교보약사알파플러스증권투자신탁 1(채권)	교보약사	일반채권	3,574	3,606	994	-216	-3	1,363
	KTB전단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운)	KTB	초단기채권	3,225	3,289	951	1,115	2,078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투자신탁 1(채권)	미래에셋	국공채권	801	814	578	-7	122	-277
하위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	한화	국공채권	4,450	4,511	-4,744	-8,531	-14,936	-1,858
	GB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 1(채권)	골든브릿지	일반채권	1,886	1,913	-3,168	2,080	-1,334	
	삼성코리아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 1(채권)	삼성	일반채권	3,725	3,752	-1,905	-2,501	-5,451	
	한국투자e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모)	한국	초단기채권	1,434	1,458	-1,304	519	-1,433	
키움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 1(채권)	키움투자	국공채권	2,168	2,223	-1,184	-2,675	-5,323	-7,178	

주1) 운용 및 일반펀드 대상(ETF포함)

주2) 2017년 하반기 기준: 2017.07.03 ~ 2017.12.01 / 2017년 상반기 기준: 2017.01.02 ~ 2017.07.03

출처 : FnSpectrum. 설정액 100억원이상인 펀드를 대상으로 함. 국내채권형펀드(공모) 대상 / 기준일: 2017.12.01



[4] Appendix

4.1 국가별 주가지수

〈표 14〉 국가별 주가지수 등락률

(단위: pt, %)

지수	2017-11-30	1개월 대비	3개월 대비	연초 대비	1년 대비
KOSPI	2,476.37	-1.02	4.39	22.20	24.85
KOSPI200	325.25	-1.55	5.04	25.09	27.92
KOSDAQ	771.42	11.85	17.77	22.17	29.41
MKF500	5,074.33	-0.43	6.15	25.98	29.31
미국 다우산업	24,272.35	3.83	10.59	22.82	26.92
미국 나스닥	6,873.97	2.17	6.93	27.69	29.12
미국 S&P500	2,647.58	2.81	7.12	18.26	20.41
미국 러셀3000	1,569.22	2.80	7.35	17.83	19.94
미국 필라델피아	1,272.55	-0.24	14.20	40.39	44.70
니케이 225	22,724.96	3.24	15.67	18.89	24.12
홍콩 항셱	29,177.35	3.30	4.32	32.62	28.03
홍콩 H지수	11,475.72	-0.28	1.60	22.15	16.65
중국 상해종합	3,317.19	-2.24	-1.30	6.88	2.07
인도 Bombay Sensitive30	33,149.35	-0.19	4.47	24.50	24.37
인도네시아 JKSE	5,952.14	-0.89	1.50	12.37	15.60
말레이시아 KLSE	1,717.86	-1.72	-3.12	4.64	6.10
독일 DAX 30	13,023.98	-1.55	8.03	13.44	22.40
영국 FTSE 100	7,326.67	-2.22	-1.40	2.57	8.00

출처 : DataGuide

4.2 MSCI 지수

〈표 15〉 MSCI 지수 등락률 (USD기준)

(단위: %)

구 분	2017-11-30	1개월 대비	3개월 대비	연초 대비	1년 대비
AC WORLD INDEX FREE	505.44	1.78	5.65	19.82	22.26
EMF (EMERGING MARKETS FREE)	1,120.79	0.15	3.04	29.98	29.90
EUROPE	1,771.14	0.06	3.68	20.40	26.64
EM EUROPE	329.83	0.05	-1.79	11.06	20.96
NORTH AMERICA	2,673.35	2.66	6.83	17.86	19.87
EMF LATIN AMERICA	2,719.26	-3.21	-5.35	16.18	16.71

4.3 MKF500 지수

〈표 16〉 MKF500 지수 등락률

(단위: pt, %)

지수	2017-11-30	1개월 대비	3개월 대비	연초 대비	1년 대비
MKF500	3,886.77	-0.42	3.98	1.06	-5.54
대형주	3,816.33	-0.31	3.84	1.26	-5.89
중형주	5,141.45	-2.06	4.67	0.44	-1.04
소형주	2,659.08	0.49	4.51	0.05	-7.31
성장형	2,767.36	1.31	4.48	-1.04	-7.37
가치형	5,300.18	-1.92	3.54	3.01	-3.78
에너지	7,297.50	0.68	8.34	16.25	29.72
소재	5,734.94	-9.27	-1.82	2.01	-7.00
산업재	4,701.31	-5.33	0.88	0.39	-19.59
경기소비재	8,036.40	-1.68	-0.58	-2.54	-6.18
필수소비재	13,854.49	2.12	9.75	0.25	4.31
의료	11,008.02	5.17	5.22	6.49	22.92
금융	2,472.00	-3.82	3.34	-1.93	-13.66
IT	4,400.63	3.21	6.94	0.20	-8.15
통신서비스	708.73	6.02	2.25	7.78	1.62
유틸리티	2,754.24	0.70	6.31	19.50	18.93

출처 : DataGuide

4.4 금리 / 외환

〈표 17〉 주요 금리 등락률

(단위: %, bp)

금리	2017-11-30	1개월 대비	3개월 대비	연초 대비	1년 대비
콜금리(1일물중개거래)	1.53	27.00	26.00	26.00	30.00
CD유통수익률(91)	1.64	24.00	26.00	12.00	12.00
CP(91일)	1.78	18.00	20.00	8.00	24.00
회사채(무보증3년, AA-)	2.63	-9.70	32.70	50.30	47.90
통화안정(364일)	1.80	3.70	32.70	23.90	20.10
통안채(2년)	2.03	-10.60	34.60	39.50	31.90
국고3년(국채관리기금채3년)	2.08	-8.90	32.80	43.70	36.50
미국국채(10년)	2.42	3.80	29.50	-3.10	2.50
리보(미 달러) 1년	1.95	10.33	23.83	26.60	31.27

출처 : DataGuide



〈표 18〉 환율 등락률(WON/각국통화)

(단위: %)

통화	2017-11-30	1개월 대비	3개월 대비	연초 대비	1년 대비
일본(100엔)	969.31	-1.81	-4.97	-5.88	-6.32
홍콩(H.달러)	139.33	-2.93	-3.26	-10.32	-7.87
대만(D.달러)	36.24	-2.37	-3.05	-2.50	-1.58
중국(위안)	164.41	-2.61	-3.64	-4.87	-3.24
싱가포르(S.달러)	806.43	-1.80	-2.73	-3.25	-1.86
인도(루피)	16.88	-2.37	-4.25	-4.85	-1.40
필리핀(페소)	21.62	-0.32	-1.82	-10.99	-8.31
인도네시아(100루피아)	8.06	-2.54	-4.84	-10.14	-7.14
태국(바트)	33.36	-1.04	-1.68	-0.92	1.43
오스트레일리아(A.달러)	823.40	-3.83	-7.40	-5.41	-5.64
EU(유로)	1,288.95	-1.03	-3.44	1.48	3.32
영국(파운드)	1,465.10	-0.89	0.96	-1.28	0.36
덴마크(크로네)	173.21	-1.03	-3.48	1.37	3.30
스위스(S.프랑)	1,102.00	-1.67	-5.51	-6.85	-4.56
러시아(루블)	18.61	-2.92	-3.82	-5.72	1.81
브라질(레알)	333.75	-2.46	-6.55	-9.85	-3.30
멕시코(페소)	58.66	0.50	-7.20	0.53	2.77

출처 : DataGuide

4.5 국제원유 / 상품가격

〈표 19〉 상품가격 등락률

(단위: %)

구분	상품	단위	2017-11-30	1개월 대비	3개월 대비	연초 대비	1년 대비
에너지	WTI(US.)	\$/bbl	57.40	5.55	21.53	6.75	16.10
	DUBAI	\$/bbl	60.82	4.29	23.47	12.84	37.85
	BRENT(EU Dtd)	\$/bbl	63.57	3.58	21.36	13.23	25.96
	난방유	\$/gal	1.89	0.44	7.69	11.05	20.49
	천연가스	\$/궤론	3.03	4.45	-0.49	-18.77	-9.76
귀금속	금	\$/ounce	1,273.20	-0.49	-3.27	10.71	8.75
	은	\$/ounce	16.38	1.58	-6.28	2.80	-0.15

구분	상품	단위	2017-11-30	1개월 대비	3개월 대비	연초 대비	1년 대비
비철금속	알루미늄	\$/ton	2,050.00	-4.92	-3.76	19.64	19.01
	전기동	\$/ton	6,790.00	-0.59	-0.41	23.43	18.29
	납	\$/ton	2,475.00	1.85	3.30	24.69	6.22
	니켈	\$/ton	11,325.00	-4.59	-3.04	13.14	3.28
	주석	\$/ton	19,580.00	1.71	-4.86	-7.20	-8.29
	아연	\$/ton	3,175.00	-2.25	1.18	23.88	17.20
반도체	DDR2 1GB	\$/개	189.17	0.86	4.59	-1.73	-0.07
농산물	CRB지수(1967=100)	pt	341.60	-1.16	-0.18	-2.95	1.49
	옥수수	\$/bu	985.60	1.23	5.28	-1.08	-4.51
	대두 (콩)	\$/bu	409.20	-2.20	-0.24	0.29	7.57
	소맥	\$/lb	128.50	2.72	-0.66	-6.24	-14.67
	커피	\$/lb	72.81	6.48	1.86	3.06	1.72
	면화	\$/lb	76.98	-2.40	0.84	8.96	20.39

출처 : 관련 상품거래소

본 리포트는 특정 운용회사나 특정 펀드를 권고하거나 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단지 펀드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리포트의 수익률이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이를 통한 투자결과에 대해서 당사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